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2020. 6. Vol. 301



1975년 제7회 양양군민체육대회

힘내세요, 양양군민!

군 자체자금을 활용한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급 안내

◆지원대상 : 모든 군민

- 양양군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일(20. 4. 23)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 세대수 14,119세대 인구수 27,713 (2020. 3. 31현재 기준)

◆지원규모 : 주민 1인당 20만원 선불카드 지급(가구당 지급)

- 양양군 지역내에서만 사용 가능
- 2020. 12. 31한 사용(사용기간 경과시 사용 불가)

◆지급방법 : 군민 편의를 위해 마을단위 출장 지급

- (1단계) 마을 출장 지급(마을담당 공무원) : 6. 8 ~ 6. 12(5일간)
- (2단계) 읍·면사무소 지급 : 6. 15 ~
- (3단계) 미신청인 대상 유선 통화 안내 후, 가정 방문 지급
-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신원확인→ 선불카드 지급

* (대리신청) 세대원 중 성인 누구나 일괄신청 가능(신분증 및 위임장 등)



희망양양

- 04 기획특집_ 양양문화제의 어제와 오늘
- 06 ISSUE & PEOPLE_ 양양문화예술단장 홍이표
- 09 발걸음 촌촌, 마을 가는길_ 서면 송천리
- 12 맛있는 양양여행_ 양양의 음식과 음식문화에 대한 70년의 단상

의기양양

- 14 YANGYANG NEWS
- 16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_ 7월부터 건축 가능
- 17 현남면 광진리 행정대집행
- 18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숨은 영웅, 양양출신 안병하
- 20 의정소식_ 제2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 22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_ 양양군의 고택(古宅)

열린양양

- 24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사서가 추천하는 신간
- 25 정보꾸러미_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일자리 정보
- 26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28 공익광고

COVER STORY



1975년 제7회 양양군민체육대회



양양소식 · 301호

| 발행일 2020년 6월 3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ssugi0129@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양양문화제의 어제와 오늘

선사시대부터 내려오는 문화유산과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는 양양문화제는 4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우리 군의 가장 큰 행사이다. 그러나 전 세계를 위협에 빠뜨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전국의 축제와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예정돼 있던 양양문화제 또한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1975년 제7회 양양군민체육대회

전통을 토대로 한 양양문화제

우리 군에는 오산리 신석기 유적지를 비롯하여 선사문화의 시대별 유적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낙산사와 진전사 등 불교문화의 원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영동에서 영서로 넘어가는 길목에 자리하면서 술한 외침을 막아낸 군사요충지이자 기미독립만세운동을 벌인 호국문화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양양문화제는 이러한 역사 문화적 토대를 바탕으로 고치물제와 장군성황제 등의 제례를 시작으로 제등행렬과 취타대, 농악대, 양주방어사, 대포수군만호 행차, 신석기인 가장행렬 등의 대규모 시가행진으로 이뤄진다. 양양만세운동 재현, 군민문화상 시상, 읍·면 대항 각종 민속놀이와 농악경

연, 체육경기에 주민들은 바쁜 농사일에도 불구하고 마을과 지역의 명예를 걸고 참여해 축제를 즐긴다. 학생들과 주민, 8군단 등이 참여하는 여러 공연과 양양 대표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한 상복골 농요, 수동골 상여소리 등의 민속 시연이 펼쳐지고, 다양한 부대행사가 벌어진다.

그동안 지역의 고유한 전통을 토대로 한 문화축제로서 많은 군민들의 참여 속에 양양문화제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잊혀가고 있는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양양문화제의 기원과 변천

양양문화제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려 목종 10년(1007년) 양주성을 축성하며 매년 봄·가을로 지내던 성황제에서 찾을 수 있다. 선조 25년(1592년)부터는 5월 단옷날에 장군성황신을 수호신으로 하는 성황제와 성황굿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고 한다. 제주는 고치물을 마시고 제물을 만들 때 사용하였다고 전해지며, 1920년대에는 단옷날을 기해 고치

물제와 성황제를 지내고 단옷날 민속행사를 개최하면서 영동은 물론 풍농과 풍어를 기원하는 관동지방의 큰 축제로 확대 발전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성황제가 철폐되었으나 은밀하게 지내오다가 1963년부터 1978년 사이에 군민들의 뜻으로 성황사를 건



1986년 제8회 현산문화제



1993년 제15회 현산문화제



2018년 제40회 양양문화제(상복을 농요)



2019년 제41회 양양문화제

립하고 성황제를 전승해왔다. 이에 1979년 성황제를 향토 고유의 전통문화제로 제정하기 위해 제1회 현산문화제가 시작되었다. 개최 시기에는 변동이 있었는데 제1회는 정월 대보름날로 시작해 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으로 제4회까지는 3월 1일에 개최하였다. 제5회부터는 양양만세운동이 변저나간 4월 4일로 변경했다가 1990년인 제12회부터는 기후와 농사철을

감안해 단옷날을 전후로 전 군민이 동참하는 향토제로 확대 발전시켜 현재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37회까지는 '현산문화제'라는 명칭으로 치러지다 이듬해인 2016년 9월 '양양 600년'을 기념하면서 '양양문화제'로 변경해서 치렀다. 2019년에는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으로 남대천 둔치 대신 양양종합운동장에서 펼쳐졌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양양문화제

양양문화제는 1979년 시작한 이후 끊임없이 변화 중이다. 초기에는 풍농과 풍어를 기원하는 장군성황제와 농악 등이 중심이었다가 지역 문화의 특성을 살려서 신석기인 가장행렬, 불교제등행렬, 양주방어사 행차, 대포수군만호 행차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또한 군민체육대회를 병행하며 한마당 축제로서의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변화도 일부 눈에 띈다. 일부 민속놀이 참여자들의 고령화로 안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16종에 달하던 민속놀이는 2018년부터 10종으로 줄였다. 과거 탁장사놀이는 지계를 이용해 나무를 지고 갔지만 이 또한 참여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나무를 끌고 가는 모습으로

바꾸어 진행하고 있다. 반면 전통혼례 행사 등에는 외국인 참여자들의 비율이 늘어가는 변화도 맞이하고 있다.

올해는 당초 7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양양문화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는 현실 속에서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역 축제는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등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우리 군 또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이어갈 시점이다. 시대와 환경에 발맞춰 변화하는 양양문화제가 또 한 번의 변화를 겪을 예정이다.

〈글·사진 편집부〉

양양의 문화예술을 꽃피우다



양양의 문화예술 볼거리가 풍성해지고 있다.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창작음악극 '손님'이 2018평창동계 올림픽 무대에 올라 주목을 받기도 했다. 양양문화제 거리 퍼레이드와 농악대회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양양에 국악의 신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홍이표 양양문화예술단장은 그 숨은 주역이다. 양양의 문화예술을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 오늘도 그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문화예술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중

평소라면 양양문화제를 앞두고 6개 읍면 농악대 연습도 챙기고 거리 퍼레이드 준비로 한창 바쁠 홍이표 단장이 모처럼 여유롭다. 홍 단장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양양국악수련원은 빗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양양문화제 개최가 불투명해서이다.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법도 한데, 홍 단장은 여전히 분주하다.

“그동안 시간에 쫓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서 양양에 보급할 게 뭐가 있을까, 아이디어를 짜내는 중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중이죠.”

홍 단장은 양양문화제에서 양양군 6개 읍면 주민이 참여하는 시가행진 퍼레이드 총감독을 맡아 왔다. 다른 지역 축제에서 주민은 구경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양양문화제의 특징은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자부심도 크다. 거리 퍼레이드를 진두지휘하는 홍 단장은 양양문화제에서 농악경연대회를 가장 큰 볼거리로 꼽는다.

“양양문화제는 주민들이 1년 동안 갈고닦은 농악 실력을 발표하는 자리기도 합니다. 양양군민과 관광객들 앞에서 실력을 뽐내고, 문화제 참여를 계기로 마을에 돌아가서 보름행사, 마을 체육대회, 기념행사 등등 지역 농악대가 흥을 돋우죠. 그런 기쁨이 되는 게 양양문화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악이 좋아, 산과 바다가 좋아 정착한 양양

지난 2015년부터 양양문화제 농악정연 대회에 참가하는 주민들에게 사물놀이를 가르치고, 대동놀이와 길놀이 퍼레이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양양문화제와 인연을 맺어왔다. 홍 단장은 춘천 서면 박사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20대 후반의 늦은 나이로 국악에 몸담기 시작했다. 경기도 남양주의 전통연회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2009년 서울로 활동 무대를 넓혀 광진민속예술단을 이끌었다. 2013년 양양에 사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사물놀이 강습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과 양양을 오가기 시작했다. 강습비도 받지 않고, 오히려 사비를 털어서 1년간 양양을 드나들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국악예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여기에 제 전부를 바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 따지고, 돈 따지고 하다 보면 절대로 못하는 거죠.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제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제가 좋아서 사물놀이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며 거기서 얻는 보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양양문화원에서도 강습 요청이 들어왔고 지금까지 사물놀이 지도를 하고 있다. 그 인연으로 양양문화제까지 참여하게 된 것이다.

양양에 처음 와서 주민에게 사물놀이를 가르칠 때 어려움도 많았다. 마을마다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수 방법으로 악기를 다루다 보니 잘못 전해진 것들이 꽤 있었다. 체계적인 교육이 시급해 보였다. 홍 단장은 어디서부터 왜, 잘못 전해졌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악보를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강원 영동농악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제대로 계승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든 것이다. 지금은 영동농악의 표준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사물놀이 강습을 하고 있다.

홍 단장은 2014년 말, 서울을 떠나 아예 양양에 눌러앉았다. 사물놀이 강습을 오기 전부터 가끔 들렀던 양양의 아름다운 자연이 먼저 마음에 들어와 있었다. 좋은 산과 좋은 바다를 함께 갖고 있는 곳이 양양만 한 데가 없었다. 그렇게 양양에 정착하고 문화예술의 불모지였던 양양에 문화예술단을 만들었다.



양양지역문화 콘텐츠, 무대에 오른다.

문화예술단을 꾸리고 나서 첫 성과는 2016년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동호리 멸치후리기 민속시연의 총연출을 맡아 '동상'을 수상한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강원도가 주관한 '동계올림픽 G-1 페스티벌' 공연 평가에서 양양문화예술단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선보인 창작음악극 '손님'이 우수작품으로 선정돼 올림픽 무대에 올랐다. '손님'은 양양지역의 전통 민요인 상복골 농요와 수동골 상여소리, 탁장사 놀이 등 지역 문화콘텐츠를 융복합 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지난해 '손님2'를 선보이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모두 홍 단장의 총괄기획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처럼 지역문화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 2018년 문화예술 분야 양양군민 문화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홍 단장은 안주하지 않는다. 연어와 송이 같은 지역 농산물을 콘텐츠로 한 공연을 무대에 올려 관광객들에게 더 많이 양양을 알리고 싶다. 나아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양양에 국악관현악단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지역에 국악 전문가가 없어 아마추어들을 준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관현악단을 꾸려야 하니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열심히만 들어가는 과정 중입니다."

30년 넘게 국악에 몸담은 홍 단장은 아직도 멀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국악 공부를 하며 끊임없이 배우는 중이다. 그것을 양양군민과 나누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다.

홍 단장의 마지막 당부에서 우리 가락에 대한 애정이 넘친다.

"제가 국악으로 희망과 즐거움, 삶의 가치를 발견한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국악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거기에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지 않았다. 그 어려운 걸 박준규 대표가 또 해내리라고 본다.

〈글·사진 편집부〉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서면 송천리

양양 탁장사의 전설을 품은 마을
어머니의 손맛을 살린 송천 떡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꿈꾸는 주민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하는 호랑이 이야기에 가슴이 조마조마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어려서 자식을 키우기 위해 밤늦도록 떡을 팔러 다니던 떡장수의 애환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송천리 마을 아낙네들이 50년 전부터 떡을 만든 사연에도 그런 애환이 담겨 있었으리라. 맛 좋은 떡으로 전국에 이름을 알린 송천리의 내공은 바로 주민들이 살아 온 삶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가가호호, 떡 빛는 마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척박한 산간 지역에서 농사만 지어 먹고 살기에는 녹록하지 않았던 시절, 마을의 부녀자들은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떡을 빻어 오색약수터나 설악산, 해변 등에서 팔았다. 1990년대 접어들어 국립공원 내 노점상 단속이 강화되면서 떡 파는 일마저 어려워졌을 때, 송천리 마을 부녀회가 나서서 공동으로 떡을 만들어 판로를 모색했다. 이후 보다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뜻을 모아 2009년에 송천떡마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떡 제조업을 중심으로 체험프로그램과 판매장 운영, 스토리텔링 작업, 캐릭터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송천리를 찾아간 날, 봄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다. 한 해 농사 준비로 분주했을 농부들이 한시름 놓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엇그제 모내기를 마친 송천리의 논 위에도 봄비가 아낌없이 내리고 있었다. 이 작고 푸릇한 싹이 자라 쌀이 되고, 밥이 되고, 송천리의 자랑인 떡도 될 것이다. 어느덧 발걸음은 번듯한 한옥 건물이 자리한 곳에 닿았다. 평소 같았으면 체험객들로 붐비었을 마을 사랑방과 떡 체험장, 산림 체험관 등이 한산하다. 날씨 탓인가 했더니 현재 양양의 체험마을 대부분이 이 같은 상황이라고 마을 관계자는 전한다.

“원래 4~5월이면 성수기죠. 올해는 코로나의 여파로 모든 프로그램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어요. 그래도 온라인을 통한 떡 주문은 늘어났으니 그나마 다행이죠.”

송천 떡은 주민의 삶이자, 역사이자 마을의 소중한 자원이다.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떡을 만들어 온 이유는 송천 떡만의 고유한 맛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최근 해썬(HACCP)인증을 받으면서 작업의 효율과 위생을 위해 분쇄기, 찌기, 금속검출기 등의 기계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떡에 쓰일 산나물을 직접 채취하고, 매일 수작업으로 떡을 만든다. 그 정성과 수고 덕분에 송천 떡은 일반 떡과 비교할 수 없는 부드러운 맛과 쫄깃한 식감으로 여전히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호흡 척척, 마을 일에 적극적인 주민들

하천 가운데 송림이 울창하고 강물이 양쪽으로 흐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송천리는 예로부터 탁씨 집성촌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양양문화제에서 선보이는 탁장사놀이 송천리 출신인 탁구삼 장사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것이다.

무거운 나무도 거뜬히 짊어지고 내려 온 탁장사의 기운을 이어받았기 때문일까? 송천리는 그동안 정보화마을 사업,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산촌생태마을 사업 등 마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득 창출을 위한 도전을 꾸준히 이어왔고, 전국단위 마을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2018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동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송천리에는 현재 45가구 127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 노인 인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귀촌 한 이주민들도 있어서 신구 세대 간의 갈등이나 정주민과 이주민의 의견 대립이 발생할 때도 있다. 양양군 최연소 이장으로서 2013년부터 8년째 마을 일을 맡고 있는 김성완 이장(49세)은 젊은 이장답게 열린 소통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주민 화합을 이끌어왔다. 주민들 역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애쓰고 있다. 마을 일에 있어 주민 간 단합이 잘 되는 비결이다.



송천리의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

송천떡마을은 생산과 가공 그리고 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6차 산업 우수마을로 손꼽힌다. 하지만 김성완 이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마을에 잠재된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역대 이장님들이 잘 구축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현상 유지하는 입장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대로 계속 쪽 이어져 나가면 좋겠지만, 떡을 만드는 분들이 줄고 있어서 현재 떡 가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오토캠핑장 운영이나 산책로 조성 등 마을의 또 다른 체험거리를 발굴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자 합니다. ‘떡 마을’이라는 명성에 어울리는 ‘떡 카페’도 만들고 싶습니다.”

송천리는 떡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한 마을이다. 조선시대 산업도로 역할을 했던 소동라령의 한 자락에 자리한 마을이고, 우마차로 양양장과 홍천장에 물건을 나르던 선조들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떡을 팔러 가는 길에 무사를 기원하며 조약돌을 쌓아 놓은 200년 수령의 소나무와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송천리 아낙들이 수시로 오르던 점봉산에는 마을의 옛 이야기가 담겨 있다. 마을 곳곳에 산재된 자원을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묶어서 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는 즐거움을, 주민들에게는 활력을 선사할 미래를 그리며, 오늘도 송천리는 희망을 빛낸다.

(글·사진 편집부)





양양의 음식과 음식문화에 대한 70년의 단상

외부 간섭과 영향 없는 지역 자립형 음식문화 특징



한 지역 사회의 음식문화는 매우 독특하고 복잡한 사회현상 중의 하나이다. 단순히 자연환경에만 의지하여 만들어 질 수 없는 음식의 기능과 문화적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음식은 원형적 직관에 따라 탄생과 소멸 그리고 부활을 반복한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순환의 여정을 거치게 될 때, 자연산물 뿐만 아니라 한 지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삶의 방식은 물론 문화성, 지역성, 역사성 등이 개입되게 되면서 혼합되고 정렬되어 그 지역의 고유한 역사성과 창의적 정체성이 담긴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 지역 사회의 음식문화를 통해 상고(上古) 이래의 그 지역과 그 지역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고찰 한다는 것은 지역정통성 존재의 자부심에 대한 필요 형태인 것이다. 근세 70여 년을 지나오면서, 지금의 양양 음식문화 원형의 시작 또한 이 같은 삶의 현상에서 시작되었다.



강릉 연곡리에 빼앗긴 원조음식의 사연

음식의 미시적 관점을 떠나 양양 음식문화의 완성은 근세 70여 년을 이어오면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양양 사람들의 삶과 정서 그리고 지역성과 역사성 등이 응축되어 양양만의 고유한 음식문화를 만들어 냈다. 사람이 태어나 가장 처음 접하는 음식이 '모유'였던 것처럼, 양양음식문화의 처음은 안타까움의 시작이라 할 만한 계기도 있었다. 현존하는 양양의 음식문화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은 두거리탕이다. 비록 이를 근거할 문헌상의 기록을 찾아 보기는 어렵지만 400여 년 전, 당시 서울 태생으로 강원도 관찰사였던 송강 정철이 양양에서 30분여 분 거리의 강릉 연곡리에서 처음 대접 받았다는 이유로 원조음식의 양양 유래 설을 남길 수 없게 되었지만 양양을 대표하는 국물음식문화의 원형으로 전수되고 있다. 이후로 이렇다 할 음식문화의 변화 없이 핏박의 일제강점기 때는 '통치적 음식문화'의 시대였다. 당시 고등어, 멸치, 정어리가 당시 가장 많이 잡히던 3대 어종 이었지만, 멸치젓갈을 제외하고 고등어, 정어리 관련한 음식의 발전은 없었다. 특히 정어리의 경우 '온유박(鰵油粕)'이라고 하여 정어리기름으로 군수용 기름을 만들어 태평양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수산리 마을에 정어리 저장창고를 만들만큼 정어리 잡이까지도 일본인들의 통치하에 있었던 양양의 음식 역사기였다.



특정 직업군에서 유래한 국물음식 대부분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 이후, 속초의 경우 함경도 실향민들이 대거 정착하게 되면서 지금의 함흥냉면, 아바이순대, 오징어순대, 가리국밥, 명태순대 같은 음식들이 전래되어 속초를 대표하는 음식과 음식문화로 토착화 되었지만, 양양의 경우에는 외래 음식의 유입도 없었고, 지역 자연발생적인 음식조차 발생도 없었다. 두거리탕을 제외하고 지금의 국물음식의 대부분은 어부들로부터 전래 된 음식들로, 당시 간단한 식사나 별식으로 먹던 '세치(이면수)칼국수'의 변형으로 만들어진 '홍합장칼국수', 여름철 천렵음식으로 먹던 섬국, 해장술국이나 별식으로 먹던 물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골국물처럼 도루묵을 뼈째 푹 고아 찬밥을 말아먹었던 '도루묵백숙'은 백이 끊겨 없어지고 말았다. 면류 음식으로는 피난민들이 적었던 탓에 함흥식 냉면보다는 메밀국수가 발달하였다. 이는 1973년 경, 화전정리 사업으로 강현면 둔전리 일대의 대규모 메밀밭이 사라지지기 전까지 양양 화전민들의 주식작물이기도 했던 메밀재배로 메밀국수 음식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처럼 양양 지역만의 자연적, 역사적 영향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양양음식은 외부 지역 음식의 영향 또한 간섭이나 유입이 없었던 지역 자립적 음식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다. 무릇, 어느 시간적 시점에서 양양의 음식과 음식문화이야기가 또 다시 새롭게 유래하게 될지 궁금하다.

〈글·사진: 강원도 외식저널대표 황영철〉



YANGYANG NEWS



양양버스터미널 앞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양양읍 남문리 양양버스터미널 앞 삼거리(양양읍 남문리 2-6일원)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

회전교차로는 별도 신호등 없이 교차로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교차로를 통과하는 체계로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흐름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양버스터미널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일부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신호등이 없어 흐름이 지체되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도로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람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젊은 도시...양양 인구 증가세

양양군의 인구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말 기준 양양군의 주민등록인구는 27,710명으로 지난해 4월말 기준 인구인 27,519명보다 191명이 늘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공동주택 확대 및 경관개선 사업을 실시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매력적인 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미세먼지 없는 최고의 도시로 꼽힐 정도로 깨끗한 환경, 서핑 성지로서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요즘 젊은이들의 취향에 부합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을 거듭하는 시대에서 지역에서 전염병 발병률이 극히 낮았던 만큼, 환경적으로 안전이 증명된 지역이라는 면에서 앞으로 양양군 거주에 대한 선호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양양IC 악취해방 ... 인근 돈사 철거

남양양IC 인근에 악취를 풍겨 관광양양의 이미지를 흐리게 했던 인근 돈사가 철거될 예정이다. 농장은 돼지 3,000마리와 돈사 4동 4,887㎡ 규모로 1995년부터 현남면 임호정리에서 운영해 왔다. 군은 남양양IC는 양양군의 또 하나의 관문 이기에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상쾌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농가 설득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미지 개선을 하게 되었다. 돼지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돼지 3,000마리가 출하되는 대로 6월중으로 지급 완료하고 연말까지 돈사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우(거세우) 1등급 이상 출현율 94.29% 달성

2015년부터 한우개량을 주요 정책사업으로 양양한우 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상반기 강원도 한우(거세우) 1등급 이상 출현율에서 최상위권에 올랐다. 축산물 평가원의 자료분석 결과 2020년 4월까지 전국 78.24%, 강원도 평균 87.3%로 나타났으며, 양양군은 94.29%로 강원도 평균보다 6.99%, 전국 평균보다 16.05% 높은 수치를 보였고 전년도 출하성적 대비 5.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10마리 출하 시 9마리가 1등급 이상이 나타난 것이다.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코로나19 민생안정 대책 토론을 통해 38개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및 개선방안 등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과 건의·협조사항 등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군은 5월부터 매주 목요일 부군수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종합대책 6대 분야 38개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날로 운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갈 계획이다. 6대 분야는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집중지원, 일자리 확대 및 고용지원, 지역 내 소비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세제·재정 지원,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 지원 사업 등이다.



공공체육시설 추가확충 ... 생활체육 활성화

양양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양양읍 구교리 184-2번지 일원에 지어진다. 또한, 탁구장도 양양읍 구교리 184-3번지 일원에 지상 1층 연면적 1,085.8㎡ 규모의 탁구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지난달 말 착공에 들어가 2020년 6월까지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해당부지에 다목적 체육관 및 탁구장 시설이 건립되면 종합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궁도장까지 생활체육 시설이 집적화되어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종합대회 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양양군,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 7월부터 건축 가능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통과, 상업지역 고도지구 지정 폐지



1986년 낙산해수욕장 전경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지역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월 22일 낙산지구 상업지역에 대한 고도지구 지정에 대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고도를 없애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으로 결정이 나면서 지역 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낙산해변 일반상업지구내 일정고도로 제한할 경우 일정 고도 높이의 획일화된 높이의 건축물로 낙산지역 도시경관이 더욱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도지구에 대한 제한은 없애고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양양군에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낙산에 어울리는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양양군은 이에 대한 경관, 건축, 대규모개발행위,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른 각종 심의 시 낙산해변 지역에 어울리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 재개정 등을 검토 하고, 심의 시 도시 및 환경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아름다운 낙산해변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상업지역내 건축제한은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1,300% 이하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즉 대지 100평 규모에 건폐율 80평 규모로 16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대지 내 필요한 주차장과 조경공간이 필요한 경우 건폐율을 축소하여 층수를 보다 높게 계획하면 필요한 공간 확보도 가능하다.

양양군은 현재 낙산 지역이 고층 건물 제한, 매매 및 신·중축, 용도변경 등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고,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6월초 이번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 할 계획이다.

또한, 하조대와 오산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이번 용도지역결정 후 양양군수 결정사항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달 뒤인 7월중으로 최종 결정고시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문의 : 도시계획과 지역계획담당(670-2193)

무단 점유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 실시

광진리 어촌계 행정대집행으로 무단건물 일부 철거

현남면 광진리 어촌계 불법 무단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여 일부건물 및 시설물을 철거했다.

현남면 광진리 어촌계는 양양군 공유재산인 현남면 광진리 244-15번지에 대해 지난 2016년 5월과 10월에 대부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어촌계 사무실과 창고 등으로 목 적의 사용을 해왔다. 이에 군에서는 무단건축물에 대한 원상 복구명령, 대집행 계고에 이어 6차에 걸친 대집행영장 통지에도 계도기간 만료일인 지난 3월 30일까지 자진철거가 이루어 지지 않아 5월12일 최종 대집행을 추진하게 됐다.

행정대집행을 위해 군청 공무원, 경찰, 용역업체 등 40여명을

구성해 광진리 어촌계를 방문, 무단건축물 철거에 들어갔으며, 현 거주자와의 대립으로 철거하지 못한 나머지 일부 건축물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모두 철거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7년에도 공유재산 무단점유물 5동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여 무단점유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킨 바 있다.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공유재산 내의 무단점유건축물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해갈 방침이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숨은 영웅

양양출신 안병하, 그의 역사적 삶을 재조명하다



경찰의 시각에서 5·18을 새롭게 조명한 책, 「안병하 평전」이 발간되었다.

5.18때 전남경찰은 상부의 거듭되는 강경진압 지시에도 불구하고 4.19때와 달리 시민을 향해 총을 쏘지 않았다. 신군부의 무자비한 유혈진압 지시에 나름대로 저항했던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신군부의 쿠데타에 맞선 '그날'의 진실은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다. 특히 "경찰은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없다"는 신념으로 신군부의 강압적인 지시를 끝내 거부함으로써 시민과 경찰의 생명을 지킨,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 안병하의 이야기는 최근까지도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안병하 기념사업회가 발간한 이번 「안병하 평전」은 그런 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안병하 평전」을 통해 그의 역사적 삶을 재조명 해본다.

양양읍 남문리 출신, 고 안병하 치안감

고 안병하(安炳夏) 전 전라남도 경찰국장은 1928년 7월 13일 강원도 양양군 양양면 남문리 178번지에서 순흥(順興)안씨 집안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양양공립보통학교(지금의 양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하여 제국중학교(?)를 다녔다.

이후 어린 시절에 고향을 떠난 안병하는 자주 남대천에서 놀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곤 했다고 부인 전임순씨는 전한다. 젊은 시절에는 양양 남대천을 찾아 지인들과 함께 어

항으로 고기를 잡아 죽을 끓여 먹곤 하였으며, 어렸을 적 친구들이 다수 있어 함께 어울리기도 했다고 한다. 고향을 일찍 떠난 탓에 그를 기억하는 지역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1974년 10월부터 1976년 4월까지 2년 동안 강원도경찰국장을 지내는 등 강원도와는 깊은 인연을 맺었다.

결단의 순간 '의로운 항명'으로 고매한 경찰상 세우다

1980년 5월 14일 서울에서는 대학생 7만 명이 서울역에 모였으며, 다음날 시위군중은 10만 명에 이르렀다. 광주에서도 5월 14일 시위를 시작으로 16일에는 학생과 시민, 민주인사 등 5만 여명이 모여 민족민주화성회를 열고 햇불행진을 벌였다. 시위는 평화적으로 끝났고 군중과 경찰 사이에는 아무런 충돌도 없었다. 당시 광주 전남지역의 치안책임을 맡고 있던 안병하 전라남도 경찰국장은 5월 14일 도청분수대의 집회 현장을 찾아가 학생 대표와 만나 평화적인 집회와 질서 유지를 요구하고, 시위 중에 경찰서로 연행된 학생 11명을 보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흔쾌히 수락했다. 당시 경찰로서는 파격적인 조치로 시위대는 폭력 시위를 자제하고, 경찰은 시위대를 에스코트하며 질서유지 활동을 펼쳤다. 만약 계엄군이 투입되어 무차별 폭력만 행사하지 않았다면 1980년 5월의 광주는 더 이상의 충돌과 희생 없이 끝날 수 있었다. 하지만 계엄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고, 신군부의 강경진압 명령이 떨어지자 안병하는 개인적인 결단을 해야 했다. 명령

에 따를 것인지 소신 있는 항명을 할 것인지. 항명의 결과는 어떨지 너무나 뻔한 상황이었다. 그는 결국 의로운 항명을 선택했다. 시위대가 무장을 하자 그는 경찰이 소지하고 있던 무기를 회수해 시 외곽으로 소개했다. 당시 경찰봉만 소지했던 경찰은 계엄군에 부상당한 시민들을 치료해주고, 밥도 사주고, 옷도 갈아입히는 등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시위대도 경찰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경찰이 철수한 도경 경찰국장실도 일체의 훼손이 없었다고 한다.

후에 안병하는 자신의 비망록에 당시의 데모 저지 방침으로 “경찰 희생자가 있더라도 절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고, 일반시민 피해가 없도록 한다”, “경찰봉 사용에 유의하고 반말, 욕설을 엄금한다”라고 기록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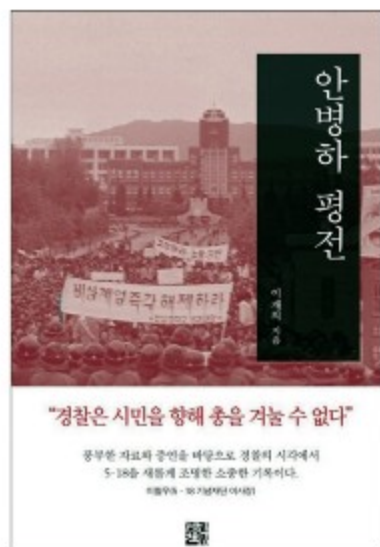
고문후유증 치료차 양양 낙산에 머무르다

광주항쟁의 마지막 진압이 펼쳐지던 5월 26일 신군부는 도청진압작전에 경찰이 앞장설 것을 요구하고 강제진압과 발포명령을 내렸다. 안국장이 이를 거부하자 계엄사령부는 그날로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연행하였다. 1980년 5월 27일자 일간신문의 1면에는 계엄군의 광주진압 기사 아래에 안병하 국장의 연행소식이 함께 실렸다. 헬기로 서울 동빙고의 보안사로 끌려간 안병하는 11일 동안 모진 고문을 받고 끝내 강제사직 당했다. 육체적인 고문 후유증뿐만 아니라, 육사 8기 출신이었던 안병하로서는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 후배들에게 받은 정신적 모멸감이 너무나 컸다고 한다. 안병하는 고문후유증으로 망가진 몸을 요양하기 위해 고향인 양양 낙산에 머물기도 했는데, 신부전증 등 병마에 시달리던 안병하는 광주 청문회가 있기 바로 전인 1988년 10월 10일 광주비망록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을 자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고인의 용기·소신·고뇌 담아 「안병하 평전」 발간

이처럼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단호히 거부했던 한 공직자의 용기와 고뇌를 평전으로 형상화했다.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월 항쟁 당시 시민군의 일원으로 전남도청 상황실에서 활동했던 이재의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위원이 평전의 저자다. 이 위원은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1980년 5월 17일부터 전남도청 최종 진압작전 하루 전인 26일까지 안국장의 행적을 좇아 평전을 발간했다. 저자는 신군부의 발포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안국장의 소신과 행위를 2차 세계대

전 당시 파리 주둔 독일군 사령관 디트리히 폰 콜티츠의 ‘불복종’에 비유한다. 히틀러는 독일군의 패색이 짙어지자 파리의 기념물과 주요 건물을 모조리 폭파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콜티츠는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파리의 황폐화를 막았다.



오랜 시간 동안 고인

의 부인 전임순 여사가 남편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 왔다. 전 여사는 1993년 여름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신고센터에 남편의 명예 회복을 신청해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1995년 5.18 희생자 가족으로 판정받았으며, 2002년 11월에는 남편의 민주화 관련자 인정 통지서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안병하 국장의 살아 생전 소원이라고 했던 국립 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된 것은 2005년 11월 24일이며, 정식으로 순직경찰로 인정된 것은 2006년으로 그가 사망한지 18년만의 일이었다. 2017년 촛불혁명 이후 경찰청은 안국장을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하며 제1호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하고 전남 경찰청사에 흉상도 제막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17일에는 전남경찰청 앞뜰에 '열린 시민의 공간'으로 안병하공원이 개장됐다.

광주의 5.18 시민단체에서는 “신군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병하 전국장의 온건 진압지침으로 유혈사태의 확산을 막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언론에서도 “당시 안병하 도경국장이 계엄군의 협박에 굴복해 시위대에 총을 쏘았다면 시민들이 대거 희생되었을 것이며, 4.19 때처럼 경찰은 쉴 수 없는 오명을 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후배 경찰들도 그의 ‘고매한 리더십’을 본받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어린 시절 모친에서 떠난 연어가 긴 여행 끝에 다시 돌아오는 남대천. 비록 육신은 멀리 현충원 묘역에 묻혔어도 양양 출신 고 안병하 치안감의 고결한 영혼은 그의 어린 시절 남대천의 추억과 함께 설악의 향기로 길이 남을 것이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 안건 원포인트 심의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5월 14일, 제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열어 긴급한 의안 4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당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군민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의 재난극복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개정된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철)에서는 양양군수로

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고제철 양양군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하게 추진했다”고 말하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집행을 주문했다.

의원 간담회 개최

양양군 남대천 어회원 조성사업 현황 및 양양 연어양식 산업화 관련 의견 청취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지난 5월 3일과 5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5월 4일 군 대외정책과와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양양읍 중심지활성화사업(선도지구)」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남대천 어회원 조성사업 현황에 관하여 의견 청취하였다.

의원들은 작년 집중 호우로 남대천 하천정비 구역이 침수된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하천 수위, 하천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주길 요구하였으며, 남대천 지하통로에 설치된 수문 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나무식재를 제외한 기본 조성공사가 조속히 완료되어 가을철 송이, 연어 축제와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5월 18일에는 군 해양수산과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양양 대표 자원인 연어 양식 산업과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의원들은 현재 양양은 연어의 고장이라는 지역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연어요리 전문점이나 연어축제 시 특화된 행사 등 연어 활용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아쉬움이 크다 말하며, 이런 가운데 웰빙문화 확산과 슈퍼푸드로 각광 받으며 국내 최대 소비자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연어에 대한 양식 산업화 논의가 시기적절함을 표했다.

또한 의원들은 현재 연어양식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업체가 육상기반의 연어 양식기술인 해수순치 기술력으로 치어 생존율을 98%에 가깝게 끌어올렸다는 점, 육상 해수순조에서 성어까지 양식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더불어, 연어양식 산업에 활력이 더해지면 지역 내 연어가공공장 설립과 유통관련업 활성화를 시작으로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지역 홍보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양군의 고택(古宅)

우리군의 고가(古家)는 총 4곳으로 현남면에 3곳 서면에 1곳이며 강원도 문화재자료가 2곳, 강원도 유형문화재가 2곳이다. 4곳의 공통적인 사항은 외양간을 주거공간의 한 부분으로 배치하여 농가의 중요한 자산이었던 소를 보호하고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꾀했던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건물 구조의 평면을 살펴보면 부엌을 서쪽으로 사랑채는 동쪽으로 배치했다는 점이 특이하고 고가마다 다양하게 주거공간을 배치한 부분이 매우 흥미롭다. 옛 선조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김성래 가옥



김택준 가옥

○ 김성래 가옥(金成來 家屋) : 현남면 북문안길 106-9,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79호

김성래 가옥은 구릉지에 형성된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고 대지의 규모에 비해 여러 채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으며 증축과 보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기단에서 지붕까지 다양한 형식을 갖춘 전통가옥이다. 시대의 다양성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79호로 지정되었다.

경사지에 건립된 이 가옥은 대문간채와 사랑채가 전문에 배치되고 전형적인 ㄱ형 겹집인 안채가 문간채와 연결되며 사랑채 뒤에 헛간채가 독립된 ㄷ자형 배치형식을 보이는 가옥이다. 경사지의 특성상 문간채와 붙은 사랑채 쪽으로 높아지는 자연석 석축을 쌓았고 사랑채는 팔작지붕으로 독립된 구조로 솟을대문¹⁾ 형식의 맞배지붕으로 구성된 문간채와 직접 연결된 형식이다. 사랑채는 2칸의 방 전면과 측면에 우물마루로 짠, 반퇴의 규모지만 비교적 넓은 뒤탈마루를 붙여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누마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뒤편에 있는 죽림과 작은 산이 배경이 되어 집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감탄할 수 있는 경관을 형성한다. 김해 김씨 가옥으로 김성래씨의 14대조계서 건립하였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 수 없다. 수차례 증축과 보수를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약 60년 전 초가였던 것을 와가(瓦家)로 바꾸었다고 한다.

이 가옥은 시대를 달리하는 다양한 목재치목기법을 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높다.

1) 솟을대문 : 행랑채의 지붕보다 기둥을 높게 세운 대문

○ 조규승 가옥(曹圭承 家屋) : 현남면 개매길 215-5,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80호

전통가옥으로 집 뒤의 얇은 야산에는 백로와 왜가리가 서식하고 있어 매호를 중심으로 이 일대가 천연기념물 제229호로 지정된 상태다.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80호로 지정되었으며 현 소유주인 정상철씨의 10대조가 건립한 것으로 초계정씨 향동파(香洞派)종택이다. 풍수적으로 볼 때 이 가옥은 백두대간으로부터 동해안으로 흘러 내려온 맥이 땀힌 대표적인 명당으로 매화낙지형(梅花落地形)²⁾의 형국이다. 대지는 노송과 왕대나무 숲이 감싸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특히 대지 입구 동서에 큰 바위가 있어 좌청룡 우백호의 집터다. 또한 옛날부터 사용하였다는 마당 아래 바위틈에서는 나



조규승 가옥



조규승 가옥 샘물

오는 샘물이 특이하다. 가옥 구조는 전면의 기단에서부터 지붕 끝까지 다양한 입면 구조를 하고 있는데 누마루형식의 사랑채와 어우러진 구성이 특징적이다. 가옥의 배치는 가장먼저 건립하였다는 사랑채와 안채 곳간채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ㄱ자형을 이루고 있으나 원래는 안채 뒤에 사당이 있었고 사랑채 누마루와 외양간이 전면으로 돌출해 있어 병(兵)자형 배치였다고 한다. 사랑채 옆면 서까래 밑 도리 부분에는 화재의 흔적이 있어 오랜 세월 많은 번고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2) 매화낙지형 : 풍수지리설에서 명당터를 이르는 말

○ 김택준 가옥(金澤俊 家屋) : 현남면 인구중앙길 89-87.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0호

김택준 가옥은 숲을 배경으로 구릉지에 자리하고 있지만 바닷가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형성된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다. 진입로가 좁아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좌우측으로 산이 감싸고 있어 명당으로 여긴다.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는데 약 200년 전에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옥은 안채와 사랑채를 평행으로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H자형 평면을 구성하고 있다.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되었다. 기단의 구성이 전체적으로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채의 정면 부분이 가장 높고 사랑채가 한단 낮게 구성되었으며 외양간이 가장 낮다. 사랑채와 안채는 독립된 지붕이며 홀처마에 팔작지붕 형식이다. 안채보다 후대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랑채는 서까래 등 재목이 안채에 미치지 못한다.

○ 이두형 가옥(李斗衡 家屋) : 서면 들들길 284-1.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1호

이두형 가옥은 조선후기에 건립되었으며 약 200년 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이씨 종택으로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ㄱ자형 북방형 겹집이다.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되었다. 사랑방은 마당으로부터 출입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고가와 달리 많은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 공간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뒤뜰은 부엌에서의 출입만 가능토록 하고 부엌이외의 출입은 담장으로 구획하여 차단하고 있다. 전체적인 입면 구성은 홀처마 집으로 팔작지붕³⁾을 기본으로 외양간을 맞배지붕⁴⁾ 형식이고 부속사는 우진각지붕⁵⁾ 형식이다.



이두형 가옥

3) 팔작지붕 : 한국 목조 건물 지붕의 한 형식으로 가장 완비된 기와지붕 구성이다.

4) 맞배지붕 : 건물의 측면에서도 지붕면이 옹마루까지 올라가게 되어 측면에 삼각형이 생기는 지붕.

5) 우진각지붕 : 지붕면이 사방으로 경사를 짓고 있는 지붕으로 정면에서 보면 사다리꼴 모양이며 측면에서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이달의 책이야기

더 해빙(The Having)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이서윤, 홍주연 지음 | 수오서재(2020)



마음가짐을 다듬으며 원하는 것을 얻는 놀라운 가르침!

부와 행운을 만나는 출발점, 마법의 감정 Having! 국내 최초로 미국에서 선(先)출간되어 세계가 먼저 찾아 읽은 『더 해빙(The Having)』. 세계적인 부자들이 성공 비결로 꼽았다는 ‘운’, 행운은 타고나는 것일까?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 물려받은 재산도, 특출난 재능도 없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대기업 창업주와 주요 경영인, 대형 투자자가 절체절명의 순간 찾는 사람, 이서윤, 그들은 그녀에게 자문을 구한 뒤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는 인생의 퀀텀 점프를 이루어냈다.

일곱 살에 운명학에 입문해 동서양의 고전을 마스터하고 오랜 기간 한국의 경제계 리더들을 자문해온 저자 이서윤은 수만 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성찰한 끝에 밝혀낸 ‘부와 행운의 비밀’을 이 책에 집대성했다. 자신의 감정을 활용해 쉽고 빠르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이 책은, 자신을 괴롭히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쉽게 전달되는 Having의 가르침을 단계별로 따라가다 보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돕는다.

◆ 책 속 한 구절 ◆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알죠.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돈을 쓰는 그 순간 Having을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감정 에너지로 돈을 끌어당기거든요. 아무리 작은 액수도 상관없어요. Having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 감정이 커져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내 능력에 감사하게 되죠. 돈을 벌어드준 세상에게도 감사하게 되고요. 그렇게 더 큰 돈이 돌아올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의 마음이에요.”

양양교육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나는 파도에서 넘어지며 인생을 배웠다

캐런 리날디 지음 / 박여진 옮김 / 갤러온(2002)



예상치 못한 역경과 실패를 마주하는 순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인생에서 고군분투 중인 당신에게 보내는 응원!

마흔이라는 나이에 처음 서핑에 도전하면서 무수히 넘어진 시간에 대한 이야기이자 형편없이 못하는 일을 하는 즐거움에 대해 쓴 글이었다. 이 칼럼은 10만회 이상 공유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못하는 일에 도전할 용기를 주었다.

서핑에서 맛있는 순간은 찰나다. 끝없이 패들링을 하고, 파도를 타기 위해 일어나지만 넘어지고 물에 빠지는 순간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게 인생에서 몰아치는 파도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었다고 그녀는 말한다.

화내기 두 번, 후회하기 한 번(2019)

릴라 리 지음 / 노은정 옮김 / 위즈덤하우스



자아도 인생도 가끔 생각하는, 조금은 성숙해진 앵그리 리틀 걸스 두 번째 이야기!

한국계 소녀 킴이 이민 사회에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일상 속에서의 인종, 성별에 대한 차별을 비판하고 주류가 아닌 사람들의 분노를 대변하고 있는 ‘앵그리 리틀 걸스’ 시리즈. 제2권 『화내기 두 번, 후회하기 한 번』. 제1권에서는 다섯 명 앵그리 리틀 걸스 등장 인물의 특징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중심이었다면, 이번 제2권에서는 각 캐릭터의 특징이 더 살아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한층 더 성숙해진 앵그리 리틀 걸스를 보는 재미를 전해 준다.

글·그림 출판사 제공 자료 발췌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24 | 25

06/11 <결백>

06/14 <침입자>

06/17 온 워드 : 단 하루의 기적

06/18 사라진 시간

06/24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살아 있다
소리꾼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양양상자재마트	00명	이재청과정육계산원 공산품잔액/조리원 배송원주차관리	08:00~22:00 (시간협의)	협의 (시간제 가능)
롯데인	4명	부스컨택아실치원	09:00~18:00 (주5일)	월200만원이상 (협의)
(주)월드와이드 새비스코리아 (음지인력개발원)	1명	사무보조원	09:00~17:00 토요일12시까지	월184만원
코레일낙산 연수원	3명	편의점 계산원	14:00~23:00 (주5일)	시급 8,590원 (협의)
(유)영양지화 환경지원센터	4명	재활용 분리선별원	09:00~18:00 (주5일)	월179만원
원세인	1명	무역사무원(영어)	09:00~18:00 (주5일)	월200만원
주식회사윤진 (홈마트)	1명	야채 - 청과 담당원	13:00~21:00 (주5일)	월180만원
원두리건설	1명	토목시공기술자 (공무 및 시공가능자)	08:00~17:00 (주6일)	월300만원이상
주식회사 스마트 푸드	10명	식품가공기계 조작원	09:00~18:00 (주5일)	연2,500만원이상 (협의)

새		로		운		일		상	
생		활		속		거		리	
두		기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살내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상영(예정)작은 영화배급이나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yangyang@scinema.org ☎033-673-7050

양양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인 모집

- **이용대상**
 - 양양군에 등록된 장애인(만18세 이상 발달장애) 중 주간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
 - 전염성 질환이 없는 분
 - 스스로 신변처리가 가능하신 분
- **이용시간** : 매주 월~금 09:00~18:00
 - * 보호자와 협의 후 조정가능
- **모집인원** : 15명(정원초과시 대기등록)
- **접수기간** : 연중수시
- **이용절차**

신청 및 초기상담(전화) → 방문상담 → 가입소(2주) → 판정회의 → 서비스 이용
- **이용료** : 일반 17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130,000원
 - *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매년 물가상승분 및 이용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 회의를 거쳐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 **이용서비스**
 - 송영서비스(치량운행)
 - 문화여가 및 교육지원
 - 상담사례관리
- **문의** : 양양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033)672-2400

2020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안내

지역별 사업체 및 종사자의 규모와 분포,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경영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0년 전국사업체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조사기간** : 2020. 6. 4. ~ 6. 29.
 - **조사방법** : 방문 조사(코로나19 상황 악화 시 전화 또는 e-메일 조사)
 - **조사대상** : 관내 모든 사업체
- 올바른 국가경제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담당조사원이 귀 사업체에 방문하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기획감사실 033)670-2214

2020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신청자 모집

- **신청기간** : 2020. 5. 25. ~ 6. 26.
- **사업기간**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시(7월 예정) ~ 2020. 11월
- **신청대상**
 - 양양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5인 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제조·건설업·운수업 등 10인 미만)
- ※ 영업개시일 1년, 양양군 주소 등록기간 1년 이내 신청 제외
 - 단, 가족이 사업을 인계받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외 증빙자료 제출(기간인정)
- **사업규모** : 최소 10개소(사업신청금액에 따라 변동)
- **지원금액** : 업소당 소요금액의 50% 지원
- **지원한도** : 최대 20,000천원신청대상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문 의** :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 033)670-2955, 2957

양양군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20. 5. 18.(월) ~ 6.19.(금)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대상자** : 양양관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
 -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가능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1인 40만원 1회 지급
- **제외대상**
 - 가.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
 -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세대원인 소상공인
 -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 *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와 동일인
 - 나. 제한업종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 **지원금지급** : 대상자 결정 통지 후 지급(7월 이내)
- **신청서류**
 - 가.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나.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면세사업자인 경우)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법인인 경우) [19년 창업인 경우]
 -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라.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신청포기확인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정보꾸러미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 안내



지원 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보통, 거주권을 가진 사람)
지원 범위	슬레이트 철거·유지·처리 비용 해당비용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개량 비용
지원 금액	주거지원금 : 1세대 344만원 주거지원금 : 1세대 427만원 (18.7% 인상) 비주거 지원 : 1세대 172만원

슬레이트는 왜 철거·처리해야 하는지요?

슬레이트는 철거·처리할 수 있는 반면에 10~15% 철유되어 있는
대부분의 고층형 석면 건축물에서 발견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정부에서는 슬레이트 건축물 거주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해주며, 취직·취업의 경우 지원금 후
개량까지 우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받나요?

지정지원대상 공동주택은 위탁업체 담당자 감독 아래 지정지원
단위 선정된 석면 제거·폐기업자 및 개량업체가 방문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을 해드립니다.

※ 지원금으로 인한 세금·소득세 부담 가능

사업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슬레이트 건축물 거주자(소유자, 임차인) 등하는 누구나 철거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개축은 철거로 인한 개량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 주택 개축·철거, 추가 지원 없음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1세대 주택 344만원, 비주택 : 172만원까지 철거·처리비용
지원하며, 주택개축은 지원금까지 427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세부 지원금액 등은 지역·주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중앙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름철 건강 지킴이 '식중독지수'

식중독이란?

음식물이나 손, 조리도구 등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강 장애입니다.



월별 식중독 발생 횟수와 원인

식중독은 사계절 내내 꾸준히 발생하며 여름철에 가장 많은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여름철은 기온 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급증하고 장마철에는 많은 강우량으로 하수나 하천 등의 병균으로 채소류, 지하수
등에 병원성 대장균과 같은 식중독균과 노로바이러스 등이 오염으로 식중독이 발생합니다.



출처 : 식품안전정보포털 식중독 발생건수(2015~2019년)

식중독지수란?

세균성, 바이러스성 식중독 발생 여부를 기반으로 기상(기온, 습도)과 매체(연지, SNS 검색어 등)
를 종합하여 식중독 발생 확률을 예측한 지수입니다.

식중독지수 서비스

식중독지수는 매월, 매일 2회(06, 18) 모레까지 예측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지수는 4단계(위험, 경고, 관심)로 구분하여 단계별 대응 요령을 기상청 날씨누리
(www.kma.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식중독 예방법은 손 씻기입니다. 손만
씻기만 해도 약 50~70% 감염 예방이 가능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이 개정된 것 아시나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8.14.]

개정사항1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개정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기간 단축

개정사항2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아파트 연면적 5000㎡ 이상,
11층 이상 해당
개정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모든 종합정밀점검 대상

자체점검의 구분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우리는 대한민국 영웅의 명예를 반드시 찾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오국영웅의 소재를 확보해주시요!

6-25 전쟁 당시 전사자 직접 매장, 복귀 또는 다른 사안이 있다면
80주 발파 조사해주시요!

■ 정보전화 : 1577-5625
■ 유해 발굴 시 보상금 지급 최대 20만원

일고 배운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함께 시 1인씩 참여해 가족을 찾고, "유가족 인명 시 10만원 지급"
"유가족 인명 시 10만원 지급"을 위해 DNA 채취 참여해주시요!

■ 작업방법 : 가계본 부근, 군병원, 애민고 등, 국방부 유해발굴감지단
(DNA, 군병원 방문 채취 시 무료진료도 가능)

■ 방문처 : 경기도 고양시 11구 11동 11번지 11호 11층 11호실
■ 전화문의 : 1577-5625, 유가족 시료채취 정보, 발파지점정보
■ 참여방법 : 소수부터 참여가능하며 신청 순서 시 1인씩 참여 가능, 유가족 시료채취

국립민중박물관 (KIMM)

국립민중박물관 (KIMM)

1577-5625 6-25

이 맑은 공기 어디~에어?



양양, 전국 최고 공기 청정지역 선정!

양양군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당 15.3 μ g
미세먼지가 없어 가장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양양은 미세먼지 안심존과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깨끗한 공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